

27일 임시공휴일 지정... 지역 업계 '기대반 우려반'

내수진작 등 소비심리 개선 기대감 탄핵정국·참사 여파 효과 의구심도 여행업계 "2-3개월전 결정했어야" 소상공인 "실질적 지원대책 필요"



정부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가운데 여행·유통업계 등 지역 업체들과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탄핵정국과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소비심리가 꺾여 내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탓이다. 사진은 지난 8일 광주 한 대형마트에서 지역민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정부가 내수경기 활성화와 관광 촉진 등을 목표로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가운데 여행·유통·외식업계 등 지역 업체들과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탄핵정국과 제주항공 참사 여파로 소비심리가 꺾여 내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탓이다. 사진은 지난 8일 광주 한 대형마트에서 지역민이 장을 보고 있는 모습.

복절 주말 직후인 월요일(8월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전체 인구 절반인 2500만명이 쉬고 인당 평균 8만3690원씩 지출한다고 가정할 때, 임시공휴일 하루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2조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또 파급 경로를 통한 경제 전체 생산 유발액, 즉 '내수진작' 효과는 4조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하지만 고물가·고환율·이상기후 등의 여파로 설을 앞두고 물가가 급등한 데다가 탄핵정국과 제주항공 참사가 겹치면서 지역민들의 소비심리가 한껏 위축돼 이번 임시공휴일에는 뚜렷한 내수 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업계의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역 소비자들 역시 설 명절을 앞두고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리자 가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먼저 유통업계는 임시공휴일 지정에 '매출 등락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광주의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연휴 기간 대형마트에서 먹거리를 구매하거나 실내 나들이를 위해 백화점·쇼핑몰 등에 방문하는 고객이 늘면서 유통업계의 매출이 상승할 수 있지만, 6일간의 긴 연휴가 만들어지면서 해외여행이 증가한다면 오히려 매출이 감소할 우려도 있다"며 "정국

불안 등으로 광주·전남 분위기가 좋지 않아 최근 매출 눈에 띄게 증가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는 거의 없었다. 향후 상황은 꺾어 봐야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여행 수요가 급감하며 큰 타격을 입은 여행업계는 임시공휴일 지정을 반기면서도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제주항공 참사 이후 무안 공항에서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예약한 스몰 다셋팀 중 세 팀을 제외한 모두가 예약을 완전히 취소했다. 나머지는 인천공항으로 노선을 변경했다"며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여행 심리가 회복될 거라는 기대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특히 광주·전남 지역의 소비위축이 심각해 예약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는 않다. 또 여행업계가 제대로 수혜를 입으려면 소비자들의 원활한 예약을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이 최소 2-3개월 전에 이뤄져야 했다"고 말했다.

외식업계 소상공인들은 "임시공휴일 지정이 내수경기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간절함을 내비쳤다. 경기침체·탄핵정국·제주항공 참사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지만, 매출 회복을 기대할 만한 뚜렷한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동구 충장로 인근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성모(67)씨는 "길어진 연휴로 외식·배

달 음식 수요가 증가해 상인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면서도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의 경우 오히려 매출이 감소할 우려도 있다. 매출 증대를 연휴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경기회복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상무지구 요리주점 사장 정모(57)씨는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오지 않는 이상 연휴가 길어졌다고 해서 소비가 급격하게 늘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탄핵정국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는 등 소상공인의 피해가 매우 크다. 그래도 명절 대목에 사정이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을 버릴 수는 없다. 내수 회복 및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지역 소비자들도 설 명절을 앞두고 급격하게 상승한 물가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락세를 보이던 배추 등 농수산물 가격이 또다시 급등하면서 설 연휴 밥상 물가 부담이 커진 탓이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직장인 김선영(48)씨는 "외식 물가뿐만 아니라 농수산물 가격도 급등해 지갑을 열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휴식의 기회가 늘어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서민들의 지출이 크게 늘어나는 힘들 거라고 생각한다"며 "모두가 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물가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사진·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

전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할인 프로모션

남도장터·우체국 등서 판매

전남도가 설을 맞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 명절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할인 프로모션은 최근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전반적으로 침체한 소비심리로 어려운 중소기업과 도민민생안정을 위해 예비비 1억 원을 긴급 투입해 최대 50% 할인 기획전으로 운영된다.

녹색나눔, 남도장터, 직거래장터 등 온·오프라인 플랫폼에서 진행한다. 500개 이상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해 농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2400여 다양한 상품을 판매한다.

온라인 행사의 경우 △전남 사회적경제쇼핑몰 '녹색나눔' △남도장터 △우체국쇼핑몰에서 오는 31일까지 매일 전 제품 40% 할인쿠폰을 선착순 제공하면, 소비자는 제공받은 할인쿠폰을 이용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오프라인 직거래 행사는 △전남상사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0개 기업 110개 제품을 20% 할인 판매하고 △롯데아울렛 광주월드컵점은 15개 기업 50개 제품을 합리적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전남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 상품을 널리 알리고 착한소비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준철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설을 맞게 됐다"며 "착한소비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돕고 소비자 부담을 덜어줄 이번 특별 할인행사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별 할인행사 제품은 녹색나눔 누리집(greenanum.co.kr), 남도장터 누리집(jnmall.kr), 우체국 쇼핑몰(mall.epost.go.kr)에서 구매하거나 전남상사 사회적협동조합(061-282-8690)을 통해 전화로 주문할 수 있다. 오지현 기자

현대차 싼타페·기아 EV3, '세계 여성 올해의 차'

싼타페, 대형 SUV 부문 EV3, 컴팩트 SUV 부문

현대차그룹은 8일(현지시각) '2025 세계 여성 올해의 차(WWCOTY)'에서 현대차 싼타페가 '대형 SUV' 부문, 기아 EV3가 '컴팩트 SUV'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2025 세계 여성 올해의 차는 5개 대륙 55개국 82명의 여성 자동차 기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안전 △주행 △기술 △편안함 △효율성 △친환경 △가성비 △성 평등 측면에서 차량을 평가한다.

올해의 경우 2024년 한 해 동안 최소 2개의 대륙 또는 40개국에서 출시한 81대의 차량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으며 △도심형 차 △컴팩트 SUV △대형 SUV △대형 승용 △4륜구동 및 픽업 △퍼포먼스 및 럭셔리 등 총 6개의 부문에서 각각 최고의 차량을 선정했다.

싼타페는 H모양의 독창적인 램프와 직



선적인 디자인, 넉넉한 실내공간이 인상적이고 1.6터보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등으로 구성된 파워트레인과 다양하고 실용적인 기능을 갖췄다고 호평받으며 최고의 대형 SUV로 선정됐다.

EV3는 유럽 WLTP 기준 최대 605km의 충분한 1회 충전 시 주행가능거리, 우수한 품질, 다양한 편의사양은 물론 뛰어난 가격 경쟁력까지 갖춰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아 최고의 컴팩트 SUV 부

문을 수상했다.

지난해에도 기아 EV9이 '2024 세계 여성 올해의 차'에서 각 부문 수상 차량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차량을 의미하는 '최고의 차'를 수상하며 최고 수준의 상품성을 입증한 바 있다.

올해 세계 여성 올해의 차 부문별 수상 차량 중 최고의 차는 세계 여성의 날 이틀 전인 3월 6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싼타페는 영국 자동차 전문 매체 탑이어 주관 '2024 탑이어 어워드'에서 '올해의 SUV' 부문, '스코틀랜드 올해의 차'에서 '최고의 대형 내연기관차' 부문을 수상하는 등 주요 자동차 어워드에서 수상을 이어가고 있다.

EV3 역시 독일 '2024 골든 스티어링 휠 어워드'에서 '4만 유로 미만 최고의 차' 부문, '2025 핀란드 올해의 차'를 수상하고 '2025 유럽 올해의 차' 최종 후보에 선정되는 등 우수한 상품성을 인정 받았다. 박소영 기자

재테크 칼럼

2025년 집값 "바닥 예측하지 말고 기다리자"

지난해 부동산시장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양극화 된 양상을 보였다. 아파트 시장만 한정했을 경우 수도권은 최고점을 경신할 정도로 급격한 상승세를 보였고 지방은 지지부진하며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의 상승은 8월 이전 청년 특례대출 등 정부의 노골적인 부동산 양양정책에 의한 것으로 자유시장의 원칙에서 어긋난 상승이라는 것이 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의 견해였다. 실제 작년 9월 이후 DSR 적용 등 은행들

이 부동산 대출 규제를 시작하자 강남 불패를 외치던 수요자들이 급격히 사라지고 다시 하락세로 접어들었다.

작년 7월 필자는 우연히 모 방송에 출연한 유명 경제전문가들의 집값 토론을 본 적이 있었다. 그런데 집값 상승 쪽 토론자인 모 인사가 '집값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고 특히 서울의 집값은 과수요가 풀릴 것임으로 대출 규제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강남의 집값 상승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해 반대편 토론자와

필자를 놀라게 했다. 국민연금 투자 운영역까지 지내고 경제 프로그램에 단골로 출연하는 유명 인사가 부동산시장에 대한 시각이 이 정도라면 서울 부동산에 투자한 일반투자자들의 생각은 어떨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대출과 이자는 부동산시장의 출발점이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무시되는 부동산시장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작년 9월 부동산 대출 규제 이후 순식간에 가라앉고 있는 서울의 부동산시장이 이를 증



송호 경제 칼럼니스트

명하고 있다. 2025년도 쉽사리 부동산 대출 규모를 늘리기는 힘들 것이다. 엄청난 가계부채가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불경기는 더욱 깊어지고 있어서 실질 소득의 감소로 부동산

시장의 수요가 살아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혹자는 올해와 내년에는 건설 불황의 여파로 아파트 공급이 대폭 줄어 수요가 초과될 것임으로 미리 집을 사둬야 한다

고 주장하지만 지금과 비슷한 상황은 과거에도 얼마든지 있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도 아파트 공급이 크게 줄었으나 오히려 집값은 더 하락하고 장기간(약 7-8년) 부동산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당시 금융위기는 미국에서 발생해서 전 세계에 찬비를 뿌렸지만 비교적 빠른 시간에 극복했었다. 오히려 불황에 초유의 대통령 내란 사태까지 겪은 지금이 부동산시장에는 더 위험한 시기로 보인다. 바닥을 예측하려 하지 말고 기다리자. 2025년은 아마 집이 있는 사람보다도 없는 사람이 더 편안한 한해가 될 것 같다.